

일제하 전시체제기(1938~1945)

조선영화 제작목록의 재구

이덕기*

<차례>

1. 서론
2. 기존 한국영화사 자료의 문제점과 실증적 오류
3. 일제하 전시체제기 조선영화 제작 목록
4. 남는 문제들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가 전시체제를 본격화한 1938년부터 1945년 일제패망 당시까지 제작된 조선영화에 대하여 실증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제작목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 논문은 『한국영화총서』(1972)와 『실록 한국영화총서』(2002)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간 잘못 알려져 온 사실들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 결과 1. <신평의 아이들>과 <사랑과 맹세>는 동일 작품임. 2. <피와 땀>, <우리들의 전장>은 동일 작품임. 3. <최후의 승리>와 <승리의 뜰>은 동일 작품임. 4. <청명십>은 <친구>의 오기임. 5. <망루의 결사대>의 제작자는 이창용이 아니라 최인규와 후지모토임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근거로 하여 전시체제 하 조선영화의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였다. 1938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조선영화는, 극영화 35편, 문화영화 28편이 제작되었다. 물론 이러한 목록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추후 보완해가기로 한다.

주제어 : 조선영화, <사랑과 맹세>, <우리들의 전장>, <승리의 뜰>, <친구>, <망루의 결사대>

1. 서론

최근 일제하 조선영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논문 편수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요, 이 시기 조선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보다 풍부해졌다. 특히 일제 말, 다시 말해 일제가 전시체제를 구축하는 1938년 이후 1945년 패망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조선영화¹⁾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다. 당연하게도 이는 자료발굴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1938), <어화>(1939), <집 없는 천사>(1941), <지원병>(1941) 등 4편의 극영화를 수집하였고, 이어 2005년에는 <미몽>(1936), <반도의 봄>(1941), <조선해협>(1943) 등 3편의 극영화를, 2006년에는 <병정님>(1944)을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은 2008년 5월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1934)를 발굴하여 국내 현존하는 필름의 연대를 2년이나 더 끌어올렸다.²⁾

필름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이 시기 영화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 또한 활발하다. 이재명을 비롯한 연구진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해방 전(1940-1945) 공연회곡과 시나리오 자료 정리 및 공연문화사 연구”를 통해 이 시기 상영 영화의 시나리오 6편 - <거경전>, <군인 아저씨[병정님]>, <망루의 결사대>, <너와 나>, <젊은 모습>, <조선해협> -

1) 시기구분의 문제에 있어 ‘일제 말’은 대체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혹은 일제가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는 1938년 이후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대상 시기를 대상 시기를 1938년 이후로 잡는다. 1937년에 제작된 영화들은 아직은 전시체제의 영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일부의 연구들은 조선영화령이 실시된 1940년 이후로 시기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 시기 조선영화사가 일제의 정책 집행 여부에 좌우된다고 하는, 즉 다소 수동적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또한 이 글은 대상 시기를 “일제하 전체체제기”로 지칭한다. 전쟁이야말로 이 시기 조선영화의 가장 절대적인 존재 조건이라는 판단에서이다.

2) 한국영상자료원 개관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반환, 혹은 영화유산의 나눔: 동아시아 유실영화 수집과 역사 기술』, 한국영상자료원, 2008.5.10, 135~137면.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을 발굴, 정리하였다.³⁾ 또한 이준식은 일제의 영화통제 아래 제작된 선전영화 28편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⁴⁾ 김종원 또한 이 시기에 제작된 조선영화 가운데 ‘군국주의 영화’로 분류한 영화 24편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⁵⁾ 이준식과 김종원의 목록 외에도 이 시기 제작된 조선영화의 목록을 정리한 연구로 강성률의 「진정 친일영화는 무엇인가」⁶⁾와 함충범의 「일제말기 한국영화에 관한 일고찰」⁷⁾을 들 수 있겠는데, 이 두 연구에 제시된 목록은 앞서의 두 목록을 다듬은 수준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 이재명 외 편, 『해방 전(1940~1945) 상영 시나리오집』, 평민사, 2004. 엄밀하게 말해 『해방 전(1940~1945) 창작 시나리오집』에 실린 <소화19년> 또한 상영 시나리오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화19년>은 조선군 후원으로 1944년에 제작된 문화영화다.

4) 이준식, 「일제 파시즘기 선전 영화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제124집, 2004.3, 717면. 이준식이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기 아래 나는 죽으리>, <산촌의 여명>, <바다의 빛>, <지원병>, <승리의 딸>, <복지만리>, <반도의 봄>, <그대와 나>, <풍년가>, <흙에 산다>, <명량한 도로>, <우러러 대공>, <우리는 이제 간다>, <조선해협>, <조선에 온 포로>, <소화 19년>, <반도의 소녀들>, <영광의 날>, <망루의 결사대>, <젊은 자태>, <거경전>, <태양의 아이들>, <병정님>, <사랑과 맹세>, <감격의 일기>, <우리들의 전쟁>, <신풍의 아들들>, <血과 汗>.

5) 김종원, 「일제 말기의 군국주의 어용영화론」, 『한국영화사와 비평의 접점 - 김종원 영화평론집1』, 현대미학사, 2006, 162면. (원출처는 한국영화학회, 『제6회 전주국제영화제 세미나 ‘식민지시대 한국영화를 해부하다’ 자료집』, 2005.) 김종원이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군용열차>,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 <청명심>, <산촌의 여명>, <바다의 빛>, <승리의 딸>, <집 없는 천사>, <지원병>, <너와 나>, <풍년가>, <우리는 이제야 가리>, <흙의 결실>, <우러르라 창공>, <망루의 결사대>, <조선해협>, <젊은 모습>, <거경전>, <병정님>, <태양의 아이들>, <사랑과 맹세>, <신풍의 아들들>, <피와 땀>, <우리들의 전쟁>, <감격의 일기>.

6) 강성률, 「진정 친일영화는 무엇인가」, 『리토피아』, 2004년 겨울호. 이 글에서는 재수록본인 『친일영화』(로코미디어, 2006.)의 제3장 친일영화의 명명과 구분을 참조하였다.

7) 함충범, 일제말기 한국영화에 관한 일고찰, 『현대영화연구』 제3집, 2007.

이처럼 1차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이 시기 제작된 조선영화의 목록이 제시됨으로써 연구의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이 여전히 많은 오류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으나 실증적 검토는 이 시기 영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 작업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논의를 바로 잡기 어렵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해방을 전후한 10년여의 시기 동안 가장 문제적인 연출자로 최인규를 꼽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문제적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적인 필모그래프조차 부정확하다는 점은 가히 유감스런 사실이다. 위에 거론한 네 편의 연구는 모두가 <神風의 아이들>⁸⁾과 <사랑과 맹세>를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류다. 최인규 연출의 이 영화는 기획 당시 제목이 “神風의 아이들”이었으나, 곧 “사랑과 맹세”로 그 제목이 바뀌어 제작되었다. <사랑과 맹세>의 제작을 알리는 기사는 『매일신보』 1945년 2월 16일자에 실려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朝映(사단법인 조선영화사)⁹⁾은 大本營海軍報道部 기획과 지도, 海軍省 후원으로 해군기념일 기념작을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 달 뒤인 1945년 3월 16일자 『매일신보』에는 「<사랑과 맹세> 출연배역 결정」이라는 제하에 “대본영해군기념일 기념작 조영작품 <사랑과 맹세>(신풍의 아들들 개제) 배역이 아래와 갖치 결정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사랑과 맹세>는 <신풍의 아이들>과 동일 작품인 것이다.

이 글은 일제가 전시체제를 본격화한 1938년 이후 제작된 조선영화에

8) 원제는 “神風の子供たち”이다.

9) 이는 1942년 9월에 창설된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와 다르다. 『소화20년도 조선연감』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기존의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와 조선영화배급조합을 통합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를 발족시킨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944년 5월을 전후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소화20년도 조선연감』, 경성일보사, 226면; 개척민 주제 영화, 『매일신보』, 1944.5.12.

대해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그간 잘못 알려져 왔던 사실들을 바로 잡고자 한다. 1938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영화는 일본 거대 영화사와의 제휴, 일제의 침략전쟁 선전, 조선영화령의 실시와 그 집행 기관으로서 조선영화인협회의 결성 등, 그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조건과 체제를 갖추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전시체제 아래 과연 어떠한 영화들이 실제로 제작되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 시기 조선영화를 연구함에 있어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한국영화총서』¹⁰⁾와 『실록 한국영화총서』¹¹⁾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한국영화사 자료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두 자료집은 일제하 조선영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집이기 때문이다. 실증적 검토를 위해 이 글은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연감』, 『에이가넨칸映畫年鑑』, 『에이가준보映畫旬報』, 『니혼에이가日本映畫』, 『분카초센文化朝鮮』 등 당시의 사료들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이 시기에 제작된 조선영화의 새로운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한국영화사 자료의 문제점과 실증적 오류

현재 자료집 형태로 일제강점기 조선영화에 대한 사료를 집대성한 저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72년에 한국영화진흥조합에서 펴낸 『한국영화총서(이하 ‘총서’)』이고, 다른 하나는 2002년에 사단법인 민족문화영상협회에서 펴낸 『실록 한국영화총서(이하 ‘실록’)』이다. 최근까지 일제강점기 조선영화를 다룬 대개의 연구들은 거의가 이 두 자료를 활용하고

10) 전범성 외, 『한국영화총서』, 한국영화진흥조합, 1972.

11) 김종욱 편저, 사단법인 민족문화영상협회 기획, 『실록 한국영화총서(하)』, 국학자료원, 2002.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풍의 아이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사랑과 맹세>와는 다른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되는데¹²⁾ 이러한 오류는 『총서』와 『실록』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밖에도 이 두 자료에서 발견되는 오류가 대부분 최근의 연구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그만큼 이 두 자료의 활용이 빈번하다는 반증이다. 목록만이 아니다. 내용 소개에 있어서도 이 두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눈에 띈다. 예컨대 일제 말 친일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효인이 밝힌 친일영화의 줄거리는 거의가 『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¹³⁾ 따라서 이 글은 『총서』와 『실록』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증적 오류를 점검하고자 한다.

2.1. 『한국영화총서』의 경우

먼저 『총서』는 모두 26개항에 걸쳐 각각의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 26개항은 제작회사, 제작사, 기획, 제작비, 분류, 색채, 개봉년월일, 규격, 원작, 각본, 각색, 감독, 촬영, 조명, 미술, 음악, 현상, 녹음, 편집, 배역, 작품개요, 개봉관, 흥행성적, 수출사항, 수상관계, 특기사항 등이다. 이처럼 해당 영화의 거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작품개요는 필름이나 시나리오가 남아있지 않은 상당수의 영화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록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대략의 줄거리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서』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총서』는 말미에 고증위원 및 발간위원을 소개하고 발간일지를 제시하였다. 고증위원에는 김상진, 방의석, 성동호, 윤봉춘, 이구영, 이규환 등

12) 일반적인 작가론과 작품론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김려실의 「조영 영화의 가족극가주의 (김려실,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삼인, 2006)에서도 <신풍의 아이들>은 별개의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

13) 이효인, 『한국영화사상의1』, 이론과실천, 1992, 285~286면.

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대개가 일제강점기 당시 영화현장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위촉된 것은 1971년 9월 1일이고, 고증을 착수한 것은 9월 10일, 그리고 고증을 마친 것은 불과 5일 뒤인 9월 15일이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방 이전의 영화사료를 검증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고증위원은 전문적인 영화사가라기보다는 당대를 살았던 경험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개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고증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출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점은 더더욱 『총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출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총서』에 제시된 정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총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총서』의 기록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총서』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1938년에서 1945년 일제 패망 당시까지로 한정하여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해보자.

우선 앞서 예를 들었던 <신평의 아이들>을 살펴보자. 『총서』는 이 영화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을 공군병으로 끌어내기 위한 내용의 군사 어용영화”¹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사랑과 맹세>는 어떠한가. “한국인 국민학교에 부임한 일본인 교사가 한국학생들에게 일본 풍습을 가르치며 일본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황국신민화 정책용 어용영화”¹⁵⁾라고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제공하고 있는 <사랑과 맹세> vod를 확인해보면 이 영화는 해군특별지원병 - 일명 ‘가미가제’ - 을 선전하는 영화이다. 이후 상당수의 연구자가 이 두 작품을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하게 된 오류의 근원은 바로 이 『총서』의 잘못된 기록이다.

<신평의 아이들>의 경우처럼 동일 작품을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한 오류는 또 있다. <피와 땀[血と汗]>이 바로 그것인데, 『총서』는 이 작품을

14) 『총서』, 252면.

15) 『총서』, 같은 면.

<우리들의 전장>¹⁶⁾과 별개의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피와 땀>의 경우 작품개요를 “미상”으로 처리하고, <우리들의 전장>은 “남편이 징용에 나가고 아내는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갖은 고생을 참고 견딘다는 내용의 전시총력전을 강조한 어용영화”¹⁷⁾라 하였다. 이제 『매일신보』의 기록을 살펴보자.

영화 <근로전선>

조선영화사에서 제작 준비중인 <근로전선>(피와 땀 개제)은 드디어 본격적 촬영을 개시하기로 되어 제작반 일행은 지의 30일 평남○○광산, ○○○공장, 평북정주지방에 ‘로케’차로 출발하였다. 배우들이 특별출연하게 되었고 촬영은 대개 6월말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작은 박영호, 각색은 魚川躍善, 연출은 大空久晃, 촬영은 三原幸씨등이 각기 담당하였다.¹⁸⁾

위의 기사를 통해 영화 <근로전선>은 박영호의 희곡 <피와 땀>을 영화화한 것이며, 그 연출자는 大空久晃¹⁹⁾임을 알 수 있다. 즉 영화 <피와 땀>은 촬영개시 당시 <근로전선>으로 개제된 것이다. 그리고 영화 <근로전선>은 제작 완료 당시 다시 <우리들의 전장>으로 개제된다.²⁰⁾ 두 번의 개제를 통해 영화 <우리들의 전장>이 완성된 것이다.

16) 『총서』와 『실록』은 “우리들의 전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원제는 <我等의戰場>이다.

17) 『총서』, 253면.

18) 『매일신보』, 1945.6.2.

19) 大空久晃은 신경균의 창씨명이다. 얼핏 보아 본명과 상당히 다른 창씨명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신경균은 특이하게도 두 번에 걸쳐 창씨개명을 하였다. 첫 창씨명은 大空敬均이다. 일본영화잡지협회 편, 『昭和18年 日本映畫』, 日本出版配給株式會社, 1943.12. 576면.

20) “조영 신작 <근로전선>은 <我等의 戰場>으로 개명”, 연예계, 『매일신보』, 1945.7.15.

신경균과 관련된 기록에 드는 의문은 또 있다. 『총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45년에 무려 세 편의 극영화를 연출하였다. <피와 땀>, <감격의 일기>, <우리들의 전장>이 그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조선 영화계는 유래 없는 필름난을 겪었다. 더구나 전쟁 막바지인 1945년 시점에 한 사람의 연출자가 무려 세 편의 극영화를 동시 연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앞서의 검토를 통해 <피와 땀>이 <우리들의 전장>과 동일 영화임은 밝혔으니 두 편인 셈이긴 하나, 한 사람의 연출자가 전쟁 말기에 동시에 두 편의 영화를 연출하였다는 기록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무려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치 조선영화의 신기원을 이루기라도 할 듯 화려하게 출발한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는 겨우 세 편의 극영화 - <젊은 모습>, <조선해협>, <거경전> - 를 제작하는 데 그쳤다.²¹⁾ 그만큼 전시 상황 하에서 한 편의 극영화를 만드는 일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다.

그렇다면 『총서』가 밝히고 있는 <감격의 일기>는 어떠한 영화인가. 『총서』에 실린 <감격의 일기>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명: 감격의 일기

제작사: 조선영화(주) 제작. 계몽물. 규격 35밀리 8권 발성. 감독 신경균
촬영 양세웅. 조명 김성춘 배역 최운봉 김소영 복혜숙 조용자

작품개요: 2차대전 당시에 한국인으로 구성된 무용단이 일본 본토로 징용간 한국인들을 찾아가서 위문하며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씨미 다큐멘타리적 어용영화.²²⁾

위의 기록을 요약해본다면, <감격의 일기>는 무용단을 출연시켜 증산

21) 1944년 11월 30일에 봉절된 <태양의 아이들>은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의 제1회 작품이다. 『광고』, 『매일신보』, 1944.11.26.

22) 『총서』, 254면.

을 독려하는 영화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무용단이 출연한다는 점인데, 공교롭게도 이는 <우리들의 전장>과 일치한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我等의 戰場

반도예능진 정예의 협력을 득하여

촬영완료!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제작²³⁾

我等의 戰場

(중략) 조영 연기진 총동원, 조용자무용단 출연 封切迫る²⁴⁾

반도의 예능진을 총동원하였고, 그 주요 출연진 가운데 조용자 무용단이 포함되어있다. 공교롭게도 『총서』가 소개하고 있는 <감격의 일기>의 출연진 가운데에도 조용자가 포함되어있다. 게다가 <감격의 일기>는 무용단의 출연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기에, 『총서』의 기록은 <우리들의 전장>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조선영화사에서는 반도 應徵士의 커다란 進發에 호응하여 선내와 내지 주요광산, 공장에서 결전증산에 挺身하고 있는 징용노무자의 健在敢鬪 실태와 제반 복리시설 정황을 묘사하여 자칫하면 실패하기 일쑤인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 계발영화 <감격의 일기>를 총독부 정보과와 노무과의 후원을 얻어 제작하기로 결정, 조만간 촬영을 개시하려는데, 제작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지휘: 熊谷久虎

각본: 魚川躍善

연출: 大空久晃

23) 『광고』, 『매일신보』, 1945.7.21.

24) 『광고』, 『매일신보』, 1945.7.25.

촬영: 河野雲造

제작주임: 永川讓次 (원문은 일문)²⁵⁾

현재 <감격의 일기> 관한 한 확인되는 거의 유일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감격의 일기>는 1944년 말에 제작이 결정되었고 각본은 어약선, 연출은 신경균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무용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이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총서』와 일치한다. 하지만 조선영화사의 기획이 그대로 착착 제작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세 달 후인 1945년 3월 28일자 『매일신보』에는 동원정신과 원호취지를 선전하기 위해 극작가 박영호의 <血과 汗>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이다.²⁶⁾

앞서 살펴보았듯이 <血과 汗>은 이후 <우리들의 전장>으로 제목이 변경된 후 신경균 연출로 제작된다. 대체로 한 편의 영화가 기획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반년이 넘어 걸리던 당시의 제작관행을 염두에 둘 때, 1944년 말에 기획되었던 <감격의 일기>가 제작 완료되는 것은 빨라야 1945년 중반 정도이다. 따라서 1945년 3월에 새로운 영화제작 기획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1944년 말의 기획이 수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⁷⁾ 게다가 <우리들의 전장> 또한 각색자는 어약선으로, 이는 <감격의 일기>와 동일한 것이다.²⁸⁾ 요컨대 <감격의 일기>는 1945년 3월을 즈음하여 박영호의 원작, <血과 汗>을 영화화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고, 1945년 7월에야 <우리들의 전장>으로 완성된 것이다.

25) 『戦ふ半島文化消息』, 『文化朝鮮』, 1944.12, 42면.

26) 『매일신보』, 1945.3.28.

27) <감격의 일기>가 제작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영화가 2편 이하의 짧은 단편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가정을 하더라도 『총서』의 기록은 거의가 <우리들의 전장>에 해당하며, 이 영화가 8편 분량의 극영화일 가능성은 없다.

28) 『원호영화 <血과 汗>』, 『매일신보』, 1945.5.2.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예는 또 있다. 『총서』는 1940년에 모두 6편의 영화가 제작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清明心>을 보면 제작회사는 조선문화영화협회이고, 감독은 아마나카 유타카山中裕, 개봉관과 개봉일자는 ‘京一新스극장’²⁹⁾, 1940년 10월 7일이다.³⁰⁾ 그런데 조선문화영화협회 작품 <청명심>은 그 존재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사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총서』가 밝힌 해당날짜 - 『실록』도 마찬가지이다 - 『매일신보』에는 <청명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 애초에 『매일신보』에는 경일문화영화극장의 상연안내가 실려 있지 않다. 경일문화영화극장의 상연안내는 『경성일보』에 실려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청명심>에 관한 정보는 실려 있지 않다.

당시의 사료를 검토해보건대 <청명심>은 <친구ともだち>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작품은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쇼치쿠松竹영화사의 시미즈 히로시清水宏를 연출자로 위촉하여 제작한 내선일체 선전 영화이다.³¹⁾ <청명심>과 제작시기가 일치하고, 소학교를 배경으로 한 아동물³²⁾이라는 점이 또한 일치한다. 다만 작품개요는 다소 차이가 난다. 『총서』에는 이 작품을 부자집 학생들이 가난한 집 학생을 괴롭히다가 빈부 차를 극복하고 서로 다정하게 공부한다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친구>는 내지에서 전학 온 학생이 조선학생과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며 친구가 된다는 내용이다. 내선일체의 주제가 빈부차의 극복이라는

29) 이는 ‘京日文化映畫劇場’의 오기다.

30) 『총서』, 227면.

31) 『소화16년도 조선연감』, 경성일보사, 1940.10, 613면; 福田清人, 『朝鮮の映畫と文學』, 『觀光朝鮮』, 1940.7. 清水 宏은 <친구>외에도 문화영화 <경성>을 연출하였다. 『소화16년도 조선연감』은 이외에도 조선총독부 체신국 제작의 <뽕어가는 조선>, 경성일보사 제작의 <바다의 寶庫>, <인삼> 등의 문화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32) 구체적인 배경은 수원심상소학교이다. 『총서』에는 ‘수원국민학교’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수원심상소학교의 오기다.

주제로 바뀌어 기록된 셈이다.

제작자에 관한 오류도 눈에 띈다. <망루의 결사대>가 그러하다. 『총서』는 이 작품을 이창용의 제작과 최인규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거의 모든 연구가 이러한 『총서』의 기술을 따르고 있다.³³⁾ 하지만 이는 틀린 기록이다. 『매일신보』 1941년 6월 15일자에 실린 서광제의 <조선영화계 동향>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고려영화사를 중심으로 이백만원 회사를 맨드다고 크게 써들고 그의 위원장격으로 이창용씨가 나섰는데 며칠 후에 대소 10개의 제작소가 합동이 되겠소 하고 그역 위원장격으로 이씨가 선임이 되었는데 며칠간의 신문을 보면 그 두 가지 직은 물론 고려영화사 사장까지 내노코 영화제작에서 나가버렸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이창용은 1941년 6월 당시 고려영화사 사장을 사임하고 영화제작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영화, <망루의 결사대>의 제작 발표 시점은 1941년 12월 24일이다. 해당일자 『매일신보』에는 도호와 고려영화사가 합작으로 ‘국경경비대’를 영화화한 <망루의 결사대>를 기획하고 있으며, 크랭크 업은 다음 해인 1942년 3월이라 밝히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기사에 실린 제작자 명이다. 해당 기사에는 “제작 藤本眞澄(東寶), 崔寅奎(고려)”라 밝히고 있다. <망루의 결사대>의 제작자가 이창용이 아닌, 후지모토 마스미와 최인규임을 알리는 기사는 또 있다. 『매일신보』 1943년 4월 8일자 광고에도 <망루의 결사대>의 제작자는 후지모토 마스미와 최인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망루의 결사대>가 기획되던 당시 이창용은 이미 제작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고, 이 영화의 제작은 도호의 후지모토 마스미와 고려의 최인규가 맡았던 것이다.³⁴⁾

33)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엮은 『고려영화협회와 영화신체제』(2007)을 들 수 있겠다.

34) 최인규는 이 영화의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 및 연출보좌까지 담당하였다. 광고, 『매일신보』, 1943.4.24; <망루의 결사대> vod,

2.2. 『실록 한국영화총서』의 경우

다음으로 『실록』을 살펴볼 차례이다. 『실록』의 구성은 기존의 『총서』와 유사하다. 각각의 영화를 모두 24개항에 걸쳐 정리하고 있는데, 제작비, 색채, 분류, 작품개요, 수출상황, 수상관계 등이 빠지고, 대신 평문, 도움말, 출전, 기타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작품개요는 평문과 도움말로 대체된 셈인데, 이는 보다 실증적인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출전을 밝혀두고 있는 점은 기존의 『총서』에 비해 자료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도 조희문, 김갑의 등 전문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총서』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실록』이 『총서』에 비해 확연히 다른 점은 그 대상 작품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점이다. 기존의 『총서』가 해방 전 조선영화를 모두 171편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실록』은 무려 285편을 다루고 있다. 『실록』의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실록』의 발간으로 인해 무려 114편의 조선 영화가 새로 발굴된 셈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숫자는 실제 제작되지 않고 다만 기획 단계에 머문 작품들의 목록이 포함된 결과이다.

1938년에서 1945년까지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자. <황무지>는 나운규의 죽음으로 인해 제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외에 <백두산>, <아버지>, <태풍>(이상 1938년), <춘향전>, <소금>, <여학생>, <어머니의 힘>, <별 있는 풍속>, <김옥균전>(이상 1939년), <유정>, <청춘야화>, <동학당>, <대지>, <백치 아다다>, <다옥정 야화>(이상 1940년) 등의 영화가 기획단계에 그쳐 실제 제작되지 않았다. <곰의 일기>, <북풍>(이상 1939년) 등은 촬영개시를 알리는 기사는 보이나 실제 제작이 완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160&mul_id=674&file_385,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해안지대>(1939년), <소록도>, <제주도>, <반도를 말한다>, <승리의 딸>, <최후의 승리>, <정어리>, <인삼의 일생>, <산촌의 여명>, <바다의 빛>(이상 1940년), <나는 간다>³⁵⁾(1942년) 등의 문화영화가 새롭게 수록되었다. 문화영화의 목록이 추가된 것은 『총서』에 비해 진일보한 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도 크고 작은 오류가 눈에 띈다. 우선 <승리의 딸>과 <최후의 승리>는 동일 작품이다. <신평의 아이들>과 <사랑과 맹세>의 경우에서처럼, 이 영화 또한 제작 도중에 제목이 바뀌었다.³⁶⁾

누락된 작품도 많다. 『에이가넨칸』 1942년판과 1943년판, 그리고 『니혼에이가 日本映畫』 1944년 11월호에 소개된 조선의 문화영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실력>(국민총력조선연맹 감수, 경성발성영화사 제작)
 <조선 농업보국청년대>(조선총독부 문서과 제작)
 <개척지 소식>(조선총독부정보과 제작)
 <신평 조선 1941년판>
 <온돌>³⁷⁾

<총감의 연설>, <총독 운산광산 시찰>, <우리는 이제야 간다>, <반도의 처녀들>, <1944년>, <조선에 온 포로들>³⁸⁾

<우리는 이제야 간다>(국민총력조선연맹 위촉 작품)

35) 이는 “우리는 이제야 간다”의 오기이다. 원제는 “我等今征々”.

36) 최후의 승리 촬영개시, 『조선일보』, 1940.5.2; 승리의 딸 촬영대, 훈련소에서 ‘로케’ 중, 『조선일보』, 1940.5.16. 이 두 기사는 모두 “조선구귀영화사 제1회 작품”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최후의 승리>와 <승리의 딸>은 조선구귀영화사 제1회 작품으로 동일 작품인 것이다.

37) 일본영화잡지협회 편, 『昭和17年 映畫年鑑』, 大同印刷株式會社, 1942.9, 7-10면.

38) 일본영화잡지협회 편, 『昭和18年 映畫年鑑』, 大同印刷株式會社, 1943.12, 557면.

<소화 19년(1944년)>(조선군 후원)
 <조선에 온 포로>(조선군 후원)
 <반도의 처녀들>(총후 조선여성을 다룬 음악 영화)
 <영광의 날>(해군특별지원병제도 선전 영화)
 <되살아나는 땅>(천수답 개량 선전 영화)
 <우리들 군합기와 함께>(구리회수운동 선전 영화)³⁹⁾

『실록』에는 위에 제시한 목록 가운데 <우리는 이제야 간다>만이 실려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다수의 자료가 보강되고, 그 수록편수가 늘어난 데 비해 정보의 정확성은 다소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특히 앞서 논한 『총서』의 오류 - <신평의 아이들>, <피와 땀>, <감격의 일기>, <청명심>, <망루의 결사대> 등의 오류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기본정보는 거의가 『총서』와 일치한다. 추측하건대 『총서』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실록』에 새롭게 추가된 영화의 목록 대부분이 그 제작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적어도 전시체제 하 조선영화에 관한 한 『실록』은 『총서』에 비해 그리 진일보한 면을 보이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3. 일제 말 전시체제 하 조선영화 제작 목록

결론적으로 말해 『총서』와 『실록』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덮어놓고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되 개별 영화작품의 경우 결국은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을

39) 『昭和18年 朝鮮映畫一覽』, 『니혼에이가』 1944.11, 25면.

일일이 확인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다. 더구나 실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의 경우 그 확인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동안 제작된 조선영화의 목록은 전혀 없는 것인가.

현재 확인된 자료는 모두 두 건이다. 하나는 『삼천리』 1940년 5월호에 실린 「朝鮮文化 及 産業博覽會 映畫編」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기준보』 1943년 7월 11일자에 실린 「조선영화 제작 연표」이다. 『삼천리』에 실린 연표는 작성당시까지 제작되었거나 제작중인 영화 126편을 수록하고 있고, 『에이기준보』에 실린 연표는 작성당시까지 제작되었거나 제작중인 영화 137편을 수록하고 있다. 두 연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에이기준보』의 연표가 보다 정확해 보인다. 『삼천리』의 연표는 감독과 출연진 등의 세부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많고, <산촌의 여명>(1939), <처의 모습>(1939) 등이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에이기준보』의 연표에 실린 1938년에서 1942년까지의 영화목록은 다음과 같다.⁴⁰⁾

제명(연도)	권수	제작사	연출자	촬영
청춘부대(1938)	8	조선키네마	홍개명	이신웅
한강(1938)	7	반도영화사	방한준	양세웅
군용열차(1938)	8	성봉, 도호 합작	서광제	양세웅
도생록(1938)	8	천일영화사	윤봉춘	이신웅
어화(1938)	8	극광영화제작소	안철영	이병목
귀착지(1939)	8	한양영화사	이영춘	이신웅
무정(1939)	8	조선영화회사	박기채	井上 堯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1939)	12	고려영화사	이명우	최순홍
국경(1939)	7	천일영화사	최인규	황운조
애련송(1939)	8	극연화 영화부	김유영	

40) 「朝鮮映畫製作年表」, 『에이기준보』, 1943.7.1, 20~21면.

41) 조선구귀영화를 지칭한다. 조선구귀영화사는 조선황국영화사의 전신이다.

제명(연도)	권수	제작사	연출자	촬영
바다의 빛(1939)	4	조선문화영화협회	山中 裕	岡野進一
국기 아래 나는 죽으리라(1939)	4	조선문화영화협회	山中 裕	岡野進一
성황당(1939)	7	반도영화제작소	방한준	金井成一
새로운 출발(1939)	10	조선영화회사	이규환	양세웅
산촌의 여명(1939)	6	조선문화영화협회	山中 裕	
방공의 맹세(1940)	6	경성발성영화제작소	中川紫朗	田中十三
수업료(1940)	8	고려영화사	최인규, 방한준	이명우
지원병(1940)	8	동화홍업	안석영	이명우
처녀도미완성 중지)		한양영화사	신경균	이병목
수선화(1940)	8	조선영화회사	김유영	황운조
승리의 뜰(1940)	7	조선황국영화 ⁴¹⁾	방한준	최순홍
처의 모습(1941)	11	동아발성영화	이창근	이창근
복지만리(1941)	10	고려영화사	전창근	이명우
처의 윤리(1941)	7	조선예흥사	김영화	황운조
창공(1941) ⁴²⁾	9	경성영화제작소	이규환	양세웅
신개지(1941)	9	한양영화사	윤봉춘	이신웅
집 없는 천사(1941)	10	고려영화사	최인규	金井成一
반도의 봄(1941)	9	명보영화회사	이병일	양세웅
그대와 나(1941)	10	조선군보도부	허영	森尾鐵郎
풍년가(1941)	7	고려영화사	방한준	金井成一
흙에 영근다(1942)	7	조선전매국, 조선영화사	안석영	황운조
밝은 鋪道(1942)	4	경성발성영화제작소	박기채	金井成一
우리르라 大空(제작중) ⁴³⁾		조선영화제작회사	김영화	황운조, 양세웅

42) 기획과 촬영단계에서는 제목이 “돌쇠”였다.

43) 이 영화는 1943년 4월 5일 명치좌에서 개봉되었다. 규격은 9권이며, 조선군보도부와 체신국항공과가 후원하였다. 『니혼에이가』, 1944.11, 25면.

『에이기준보』 1943년 7월 1일자는 조선영화특집으로 구성되었다. 이 특집호는 조선총독부의 주요 간부들과 조선영화의 주요 관계자가 총동원되어 조선영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조사하고 정리한 것이다.⁴⁴⁾ 그런 점에서 『에이기준보』의 작품목록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뢰할만한 목록인 셈이다. 다만 <친구>를 비롯하여 <정어리>, <인삼의 일생> 등의 문화영화는 누락되었다. 추측하건대 필름 길이 2권 이하의 짧은 단편물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943년 이후 제작완료된 영화들의 목록이다. 우선 극영화의 경우 앞서의 논의를 통해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조선해협>, <젊은 모습>, <거경전>의 세 편과, 사단법인 조선영화사가 제작한 <태양의 아이들>, <사랑과 맹세>, <우리들의 전장>의 세 편, 조선군보도부가 제작한 <군인아저씨> 한 편, 그리고 일본 도호영화사와 고려영화사가 합작으로 제작한 <망루의 결사대> 한 편, 도합 8편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문화영화의 편수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1940년에서 1943년 사이에 제작된 문화영화는 앞서 살펴본 『에이기준보』와 『니혼에이거』, 『에이기준보』 등의 자료를 통해 대략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944년 이후 제작된 문화영화의 경우 관련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분카초센』과 『매일신보』에 산재된 몇몇 기사를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우선 1944년 5월 12일자 『매일신보』에 사단법인

44) 이 특집호에는 조선총독부경무국도서과장인 森浩가 조선에서의 영화에 대하여,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장이자 사단법인조선영화배급사 사장인 田中三郎이 「조선영화의 신동향」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상무취체역이자 촬영소장인 中田晴康이 영화정책과 영화제작을, 조선군보도부장인 倉茂周藏이 「조선영화에의 희망」을, 조선문인보국회이사장이자 연극문화협회명예회장인 辛島驍가 조선과 영화를 기고하였고, 조선총독부정보과장인 堂本敏雄을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영화관계 주요인사와 조선영화문화연구소장으로 있던 이창용 등이 참석한 좌담회 「조선영화의 특수성」이 실렸다.

조선영화사가 제작하고 조선총독부와 조선이주협회가 후원한 개척민 주제 영화 <열어라 대륙 拓け大陸>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영화사 산하의 전시영화제작정신대가 제작한 3편의 영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는 조선군보도부의 지도 아래 ‘전시영화제작정신대’를 조직하여 일련의 문화영화를 제작하였다.⁴⁵⁾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승리>(이상 1944년), <영광>(1945년)의 세 편이다. <영광> 이후에는 이렇다 할 문화영화 제작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⁴⁶⁾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의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제명(연도)	권수	제작사	연출자	촬영	영화개요
친구(1940)	2	조선총독부 철도국	清水 宏		소학교 배경 내선일체 선전 문화영화
경성(1940)		조선총독부 철도국	清水 宏		경성의 풍물을 전하는 문화영화
뻘어가는 조선(1940)		조선총독부 체신국	高岩 柴		조선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문화영화
인삼의 일생(1940)		조선문화영화협회			조선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문화영화
정어리 (1940)		조선문화영화협회			정어리어업 소개 문화영화
일본의 실력(1941)	2	경성발성영화사			국민총력조선연맹 감수 문화영화
조선농업보국 청년대(1941)	2	조선총독부 문서과		漆原輝久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활약상을 다룬 문화영화
개척지소식 (1941)	3	조선총독부 정보과		漆原輝久	만주개척을 다룬 문화영화

45) 『戰ふ半島文化消息』, 『文化朝鮮』 제6권 4호, 1944.12. 42면.

46) 『영화 <영광> 근일 상영』, 『매일신보』, 1945.2.28.

제명(연도)	권수	제작사	연출자	촬영	영화개요
신흥조선 (1941)	4	조선총독부 문서과			일제치하 조선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문화영화
온돌(1941)	1	조선총독부 정보과			온돌의 과학성을 알리는 문화영화
우리는 이제야 간다(1942)	2	국민총력조선연맹	박기채	이명우	징병선전 문화영화
田中총감의 연설(1942)	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조선총독부정보과 위촉 문화영화
小磯총독 운산광산 시찰(1942)	2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일본광업주식회사 위촉 문화영화
망루의 결사대(1943)	9	고려, 도호	今井 正 鈴木 博		국경경비대 소개 내선일체 선전 극영화
조선해협 (1943)	1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박기채	이명우	지원병 선전 극영화
젊은 모습 (1943)	1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豊田四郎	三浦光雄	징병제 선전 극영화
소화19년 (1943)	3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森永健次郎	이명우	징병제 선전 문화영화
조선에 온 포로(1943)	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안석영	金井成一, 최순홍	조선군보도부 후원 문화영화
반도의 처녀들 (1943)	2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이병일	金井成一	총후 여성을 다룬 문화영화
영광의 날 (1943)	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최순홍	해군특별지원병제도 선전 문화영화
되살아나는 땅 (1943)	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何濟逸 男	양세웅	식량증산 독려 문화영화
우리들	2	조선영화제작주식		최순홍	구리회수운동 독려

제명(연도)	권수	제작사	연출자	촬영	영화개요
군함기와 함께 (1943)		회사			문화영화
거경전 (1944)	8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방한준	金井成一 河野雲造	증산보국 및 해양사상 보급 극영화
군인아저씨 (1944)	8	조선군보도부	방한준	이명우	징병제 선전 극영화
열어라 대륙 (1944)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大野眞一	양세웅	만주개척 선전 문화영화
태양의 아이들 (1944)	8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최인규	한형모	해군특별지원병 선전 극영화
국도방위를 위하여(1944)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조선군보도부 지휘 전시영화제작정신대 제1작
승리 (1944)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박기채	이명우	조선군보도부 지휘 전시영화제작정신대 제2작
영광 (1945)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조선군보도부 지휘 전시영화제작정신대 제3작
사랑과 맹세 (1945)	12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최인규	한형모 山綺一雄	해군특별지원병 선전 극영화
우리들의 전장 (1945) ⁴⁷⁾	10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신경균	양세웅	근로보국 주제 극영화

47) 엄밀하게 말해 이 영화는 극장에 개봉되지 못하였다. <우리들의 전장>의 마지막 광고는 1945년 8월 5일자 『경성일보』에 실려 있다. 여기에는 ‘封切迫る’라고만 되어있다. 이후 8월 15일까지의 상영안내에는 이 영화가 빠져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끝내 극장에 개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를 『에이기준보』의 목록과 합산하면 일제가 전시체제를 본격화한 1938년 이후 조선영화는 극영화 총 35편, 문화영화 총 28편, 도합 총 63편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4. 남는 문제들

이 글은 일제 말 전시체제하 제작된 조선영화를 대상으로 기존의 기록을 검토하고 실증적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풍의 아이들>과 <사랑과 맹세>은 동일 작품이라는 점, <피와 땀>, 그리고 <우리들의 전장>은 하나의 작품이며 <감격의 일기>는 그 제작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최후의 승리>와 <승리의 딸> 역시 하나의 작품임을 밝혔다. 또한 <청명심>은 <친구>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고, <망루의 결사대>를 제작한 것은 이창용이 아니라 최인규와 후지모토였음을 밝혔다.

그와 더불어 이 글은 『매일신보』를 비롯한 당대의 신문과 잡지를 근거로 하여 1938년에서 일제 패망에 이르는 시기까지 제작되었던 조선영화의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극영화 35편, 문화영화 28편, 도합 63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실증적 방법론이 갖는 엄연한 한계 -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다시금 부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유효한 것은 기존의 한국영화사 서술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사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고증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의 목록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특히 문화영

48) <처녀도>는 미완성으로 남았기에 추산에서 제외하였고 <해안지대>, <소록도>, <제주도>, <반도를 말한다> 등의 문화영화는 그 완성여부가 불투명하여 역시 추산에서 제외하였다.

화가 그러하다.

문화영화는 민지개발과 정책선전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는 영화로서 교육영화, 과학영화, 기록영화 등이 포함된다. 관청의 위탁이나 직접 제작으로도 만들어지는 영화로 관변적 성격이 짙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른바 ‘공익’을 내걸고 제작되므로 광고가 극히 드물고 그 제작정보나 상영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문화영화를 실증적으로 고구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이다. 문화영화는 1940년 1월 4일 조선영화령 공포 이후 활성화되었다. 그 이유는 문화영화 강제 상영 조항 때문이었다. 조선문화영화협회를 비롯한 군소 영화사가 난립하였으나, 대체로 이 시기 문화영화를 주도한 것은 조선문화영화협회이다. 그러나 조선문화영화협회가 제작한 문화영화조차 그 제작과 상영에 관한 신문기사는 극히 드물다.

이외에도 많은 난점이 상존해 있다. 예컨대 상당히 많은 수의 영화들이 다만 기획단계에 그쳤고, 일부는 촬영 도중 중단되었다. 이는 국책영화사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1944년 초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는 모두 4편의 극영화를 기획하고 있었다. <거경전>, <魔の山>, <母の胸>, <敵船シャ-マン号>가 그것인데,⁴⁹⁾ 이 가운데 제작 완료된 것은 <거경전> 한 편에 불과하다. 이 영화들이 제작 완료되지 못한 이유 또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영화심의의 과정을 재구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이다. 특히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출범 이후 영화심의를 담당한 기획심의회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한 고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증적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때 이 시기 조선영화의 전모를 보다 분명하게 재구할 수 있을 터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

49) 「약진! 조영 소화19년도 4대 대작」, 『국민문학』, 1944.1, 13면. 참고로 <魔の山>은 금광을 배경으로 조선인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미국인을 규탄하는 내용의 영화로 최인규의 연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母の胸>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 안석영의 연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敵船シャ-マン号>는 서면호 사건을 소재로 하여 미영을 규탄하는 내용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연출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참고문헌

1차 자료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일보』, 『국민문학』, 『映畫旬報』, 『日本映畫』, 『文化朝鮮』
『소화16년도 조선연감』, 경성일보사, 1940.
『소화20년도 조선연감』, 경성일보사, 1944.
일본영화잡지협회 편, 『昭和17年 映畫年鑑』, 大同印刷株式會社, 1942.9.
일본영화잡지협회 편, 『昭和18年 日本映畫』, 日本出版配給株式會社, 1943.12.
김종욱 편저, 사단법인 민족문화영상협회 기획, 『실록 한국영화총서(하)』, 국학자료원, 2002.
이재명 외 엮음, 『해방 전(1940~1945) 상영 시나리오집』, 평민사, 2004.
전범성 외, 『한국영화총서』, 한국영화진흥조합, 1972.

2차 자료

강성률, 『친일영화』, 로크미디어, 2006.
김려실,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삼인, 2006.
김종원, 『한국영화사와 비평의 접점 - 김종원 영화평론집1』, 현대미학사, 2006.
이준식, 『일제 과시즘기 선전 영화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제124집, 2004.3.
이효인, 『한국영화사강의1』, 이론과실천, 1992.
한국영상자료원 개관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반환, 혹은 영화유산의 나눔: 동아시아 유실영화 수집과 역사 기술』, 한국영상자료원, 2008.5.10.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고려영화협회와 영화신체제』, 한국영상자료원, 2007.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www.kmdb.or.kr>
함충범, 『일제말기 한국영화에 관한 일고찰』, 『현대영화연구』 제3집, 2007.

Abstract

A Reconstruction of Joseon Cinema List in The Japanese Imperialism's War Structure(1938~1945)

Lee Deogg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Joseon cinema in the Japanese Imperialism's war structure positively, to present accurate list of Joseon cinema.

First, this article investigate *Korean cinema library*(1972), *Authentic library of Korean cinema*(2002) closely, and correct erroneous known fact. So that 1. *Shinjunguiaideul* and *Sarangguwa Maengse(Aitochikai)* are one work. 2. *Piwaddam* and *Uricleuleujeonjang(Wareranosenjyo)* are one work. 3. *Chobueuiseungri* and *Seungrieuideul(Shorinotei)* are one work. 4. *Cheongmyeongsim* is wrong title of *Tomodachi*. 5. Producer of *Mangrueuigyeolsadae(Boronoketsitai)* isn't Lee Changyong but Choi Yngyu and Huzimoto.

And this article make new list of Joseon cinema in war structure are based on newspapers, magazine at that times. From 1938 to August 1945, Joseon cinema are made 35 volumes of film dramas and 28 volumes of cultural films. Of course, this list is imperfect. I'll complement the list later on.

Key words: Joseon cinema, *Saranggwamaengse(Aitochikai)*, *Uricleuleujeonjang(Wareranosenjyo)*, *Seungrieuideul(Shorinotei)*, *Tomodachi*, *Mangrueuigyeolsadae(Boronoketsitai)*

접수일 : 2008년 8월 28일
심사기간 : 2008년 9월 1~19일
게재결정 : 2008년 9월 19일